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가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에 소아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를 기부했다. 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대니 리를 대신해 부모가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명재 상계백병원 홍보실장, 어머니 서수진씨, 아버지 이상주씨, 김홍주 병원장, 박재현 신경과 교수. 사진제공 | 상계백병원

대니 리, 어린 생명을 위해 뛰다

소아환자 치료비 기부 '조용한 선행'

프리저던트컵 수당 절반 상계백병원에 성금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 '희망 찾기 펀드' 만들어 지속적인 기부 약속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한국이름 이진명·사진)가 고국의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조용한 선행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대니 리는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지난해 10월 프리저던트컵 인터내셔널팀 대표로 출전하며 받은 수당 약 15만 달러의 절반을 소아암 환자 및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아계통의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으로 기탁했다. 대니 리는 8일부부터 재개된 미국 PGA투어에 출전 중인 탓에 직접 병원을 찾지는 못했지만 대신 부모가 성금을 전달했다. 김명아 상계백병원 홍보팀장은 "12일 대니 리의 부모님이 병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소아암 및 소아환자

그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아계통의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니 리의 선행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김 팀장은 "부모님에 따르면 '대니 리의 희망 찾기 펀드'를 만들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 중이며, 우리 병원에도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대니 리는 프로 데뷔 이후 사회공헌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 처음 기부하면서 소아환자들을 위해 성금을 내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다. 국내에 머물다 14일 미국으로 떠난 대니 리의 부친 이상주씨는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결정하는 일하기에 크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연 뒤 "아들이 어려서부터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고 최정준 선수처럼 재단을 만들어 체계적이

고 꾸준하게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상계백병원에 성금을 기탁하게 된 배경은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아들도 기부를 통해 '1명의 어린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니 리의 선행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8세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간 대니 리는 출전료의 나머지 절반을 뉴질랜드골프협회와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골프장을 통해 주니어골프 육성기금으로 내놓았다. 또 모교에는 장학금을 기탁했다. 대니 리는 주니어시절 '골프신동'으로 불렸다. 2008년 US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던 최연소 우승기록(18세1개월)을 갱고, 2009년 조니워커클래스에서 유러피언투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4월 프로로 전향하면서 유러피언투어와 PGA투어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7월 그린브라이어클래스에서 PGA투어 첫 우승에 성공했다. 현재 세계랭킹은 45위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2016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인사회가 14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열렸다. 행사가 끝난 뒤 김민태와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릉선수촌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금빛대륙 리우로!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선수단 362명 참가 리우올림픽 선전 다짐

국가대표선수들과 체육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데 모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내 오륜관에서 2016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튿날 여자복싱국가대표 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양궁, 배드민턴, 복싱, 펜싱, 체조(기계·리듬), 유도, 탁구, 태권도, 역도, 레슬링, 빙상(쇼트트랙·스피드), 아이스하키(여자) 등 12개 종목 362명(선수 284명·지도자 78명)이 참가했다. 태권도 기대주 이대훈과 쇼트트랙 신성 최민정이 선수단 대표로 선서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 등 체육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한체육회는 '런던의 영광을 리우까지', '가자! 금빛대륙 리우로! 희망의 땅 평창으로!'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리우올림픽의 선전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국가대표선수들은 훈련개시식을 시작으로 리우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새해 강화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김정형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는 올림픽의 해를 맞은 올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덕 장관도 "체육인들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다.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이보미, 아프리카 학교짓기 성금 2000만원 기부

2015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상금왕 이보미(28)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보미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찾아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인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기부한 2000만원은 아프리카 부룬디 기레투 마을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7승을 거두며 JLPGA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이보미는 보이지 않는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기부처를 밝힐 수 없었지만 지난해에도 1억2000만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놓았다. 또 12월에는 지진과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본 후쿠시마의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15일 미국 캘리포니



프로골퍼 이보미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찾아 성금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본부장 최희규 신부, 이보미, 이보미 어머니 이희자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유영준 교수. 뉴스시스

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이보미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겠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모비스 vs KCC 양팀 모두 70점대 예상 '1순위'

농구토토 매치 3회차 중간 집계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상 55%

농구토토 매치 3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14일 오전 9시)

구분	전반 득점대		최종 득점대	
	KCC-모비스	투표율	KCC-모비스	투표율
1순위	35-40	16.72%	70-70	30.37%
2순위	40-35	14.09%	80-80	15.74%
3순위	35-35	13.50%	70-80	9.07%
합계	홈팀 우세	32.28%	홈팀 승리	16.55%
	5점 이내 박빙	33.97%	10점 이내 박빙	54.71%
	원정팀 우세	33.72%	원정팀 승리	28.70%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5일 오후 7시 전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5~2016시즌 국내남자프로농구(KBL) KCC-모비스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매치 3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4.71%는 양 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 승부를 점쳤다. 원정팀 모비스 승리 예상(28.70%)과 홈팀 KCC 승리 예상(16.55%)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에도 양 팀의 5점차 이내 점전 예상이 33.97%로 가장 높았고, 모비스 리드 예상(33.72%)과 KCC 리드 예상(32.28%)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반 득점대의 경우 KCC 35~39점-모비스 40~44점 예상(16.72%), 최종 득점대에선 양 팀 모두 70점대 예상(30.37%)이

각각 최다를 차지했다. 이번 대결은 홈 승률 1위의 KCC(17승4패)와 원정 승률 1위의 모비스(원정 12승7패)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한편이다. KCC는 13일 KGC전에서 한때 13점차로 뒤졌으나, 28점-5리바운드를 기록한 안드레 에밋의 맹활약에 힘입어 89-87로 역전승했다. 특히 에밋은 이날 결정적 리바운드에 이은 결승 자유투 성공으로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모비스는 반대로 같은 날 7위 KT를 맞아 점

전 끝에 68-69로 패했다. 현재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경기에서 5점차 이내 점전이 무려 8게임에 달할 정도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 부분이 득점대 형성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도 KCC가 3승1패를 모비스를 앞서고 있다. 이번 농구토토 매치 3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15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되며, 적중 결과는 경기가 모두 종료된 뒤 발표된다.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잡는다" 86% 압도적

농구토토 승5패 3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5일(한국 시간)과 16일 펼쳐지는 2015~2016시즌 국내 남자프로농구(KBL) 5경기와 미국프로농구(NBA)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3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85.59%는 오클라호마-미네소타(4경기)전에서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점쳤다. 미네소타 승리 예상은 5.77%, 양 팀의 5점차 이내 점전 예상은 8.63%로 각각 집계됐다.

NBA 최고 콤비 중 하나인 케빈 듀란트-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오클라호마는 서브판 퍼런스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다. 올 시즌에도 골든스테이트와 샌안토니오에 이어 서부 전체 3위를 달리며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의 폭발적 득점력이다. 오클라호마는 평균 108.7득점으로 골든스테이트(114.4득점)에 이어 NBA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12일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도 듀란트가 30점, 웨스트브룩이 22점을 올리며 팀이 뽑은 101점의 절반을 책임졌다. 하위권의 미네소타는 앤드루 위긴스가 분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4일에는 최약체 필라델피아에도 달미를 잡으며 체면을 구겼다. 객관적 전력상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 96-101로 패한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선 양 팀 모두 생각보다 많은 점수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5점차 이내 항목도 염두에 둘 만하다.

KBL에선 유독 5점차 이내 승부 전망이 많아 이번 회차 적중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5경기 중 5점차 이내 승부가 1순위를 차지한 경기는 KCC-모비스전(44.14%)을 비롯해 동부-오리온전(37.05%), KT-LG전(38.35%) 등 모두 3경기였다. 이번 농구토토 승5패 3회차는 15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14일 오전 9시)

번호	경기일시	홈: 원정	홈승	무승부	홈패
1	1/16(토) 21:45	토트넘홋스퍼: 선덜랜드	84.35%	9.62%	6.03%
2	1/17(일) 00:00	본머스: 노리치시티	33.07%	34.78%	32.14%
3	1/17(일) 00:00	첼시: 에버턴	63.66%	21.53%	14.81%
4	1/17(일) 00:00	맨체스터시티: 크리스탈팰리스	82.07%	9.89%	8.04%
5	1/17(일) 00:00	뉴캐슬UTD: 웨스트햄UTD	24.41%	26.65%	48.95%
6	1/17(일) 00:00	사우스햄턴: 웨스트브롬위치	44.26%	33.62%	22.12%
7	1/17(일) 00:00	세비아: 말라가	70.00%	17.99%	12.01%
8	1/17(일) 04:30	비야레알: 레알베티스	78.63%	12.84%	8.53%
9	1/17(일) 06:05	레알소시에다드: 데포르티보라코냐	35.10%	39.90%	25.00%
10	1/17(일) 20:00	발렌시아: 라요베카노	73.65%	16.69%	9.66%
11	1/17(일) 23:05	리버풀: 맨체스터UTD	34.47%	31.60%	33.93%
12	1/18(월) 01:15	스토크시티: 아스널	18.11%	17.23%	64.66%
13	1/18(월) 02:15	헤타페: 에스파뇰	50.08%	28.89%	21.03%
14	1/18(월) 04:30	바르셀로나: 아틀레티 빌바오	87.31%	7.82%	4.87%

"맨유 승리" 34% vs "리버풀 승리" 34% 박빙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6일(한국 시간)부터 18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EPL 리버풀-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박빙승부가 예상됐다. 리버풀 승리 예상이 34.47%,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 예상이 33.93%, 무승부 예상이 31.60%를 차지했다.

리버풀은 14일 아스널전에서 3-3 무승부로 소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최근 주전들의 부상으로 경기력이 침통치 않은 가운데, 선두 아스널을 상대로 따낸 승점이라 의미가 더 컸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뉴캐슬전에서도 3-3으로 비겨 실망감을 안겼다. 최전방의 웨인 루니가 되살아난 점은 반갑지만, 12월

이후 7경기에서 10골을 헌납한 수비진이 문제다. 다만 이번 리버풀전에서 승리한다면 타 팀 경기 결과에 따라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강등권의 선덜랜드와 대결하는데, 전체 참가자의 84.35%가 토트넘 승리를 내다봤다. 선덜랜드 승리 예상은 6.03%, 무승부 예상은 9.62%로 각각 나타났다. 프리메라리가에선 2위 FC바르셀로나와 8위 빌바오가 맞붙는 가운데, 홈팀 FC바르셀로나 승리 예상(87.31%)이 무승부 예상(7.82%)과 원정팀 빌바오 승리 예상(4.87%)을 압도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는 16일 오후 9시35분 발매 마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행위는 '불법스포츠투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